이일야의 詩, 불교를 만나다 ⑬ 화엄(華嚴) : 김춘수의 '꽃'



▶한줄 요약
시인은 단순한 하나의 몸짓도 이름을 불러주면 의미 있는 꽃으로 거듭난다고 노래했다. 몸짓이 아닌, 의미가 만나 서로 존중하며 사는 공간이 화장세계다.

하나의 몸짓에서 꽃으로

"나는 너에게 어떤 의미가 되리 / 지워지지 않는 의미가 되리."

가수 박강성이 부른 노래 '장난감 병정'의 마지막 구절이다. 지난날의 아픈 기억 때문에 사랑하는 연인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움직일 수도, 느낄 수도 없는 장난감 병정에 비유한 노래다. 가수는 맺어지지 못한 인연이지만, 그녀에게 지워지지 않는 의미로 남고 싶은 바람을 노래에 담아 부르고 있다. 누군가에게 잊히고 싶지 않은 마음이 참으로 짠하게 다가오는 곡이다.

어디 연인 사이에만 그러겠는가. 상대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기억되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능이 아닐까 싶다. 언젠가 십여 년 만에 만난 어느 학인에게 누구 아니시냐고 물었더니, 내가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걸 알고는 감사하다며 인사를 전해 온 적이 있다. 반대로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 난감했던 경우도 있었다. 사람들이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그것이 곧 관심의 척도이자 의미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게 되면 가장 먼저 알고 싶은 것이 바로 이름이다. 학창 시절 첫눈에 반해 사랑에 빠진 기억이 있다면 쉽게 이해할 것이다.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알고 싶은 것은 그다음 문제다. 그만큼 이름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는 뜻이다. 우리가 옆집에 사는 이웃의 이름을 모르는 것은 아파트라는 환경 탓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그 사람에 대해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 소개하는 김춘수 시인의 '꽃'을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시인은 단순한 하나의 몸짓이 이름을 불러주면 의미가 있는 꽃으로 거듭난다고 노래했으니 말이다.

김춘수(金春洙, 1922~2004) 시인은 경남 통영 출신으로 만석꾼 집안이라 불릴 만큼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다. 그는 일본 니혼대학으로 유학을 떠나 시를 공부하게 된다. 그곳에서 릴케(Rainer Maria Rilke, 1875~1926)를 비롯한 여러 시인을 만나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지만, 일왕과 조선총독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퇴학을 당한다.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통영중학교와 마산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는다. 1945년에는 유치환, 윤이상 등과 함께 통영문화협회를 창립하고 본격적인 창작 활동을 시작한다.

1948년 첫 시집인 〈구름과 장미〉를 출간하고, '산악', '모나리자에게', '꽃', '처용', '비에 젖은 달' 등 많은 작품을 발표한다. 시인은 경북대학교와 영남대학교 국문과 교수로 자리를 옮기면서 작품 활동을 이어간다. 1958년에는 한국시인협회상을 수상했으며, 1959년에는 아시아 자유문학상을 받기도 했다. 그런데 김춘수는 시인과는 어울리지 않은 행보를 보인다. 1981년 제1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정의당 전국구 의원으로 당선되어 정치인으로 활약한 것이다. 시인에게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절일 것 같다.

대중에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시인은 5공화국 시절 전두환을 찬양하는 헌정시를 썼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에게 '대여(大餘)'라는 호를 지어준 서정주 시인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셈이다. 다만 김춘수는 서정주와 달리, 자신의 행위에 대해 사과했다고 전해진다. 그는 "한마디로 100% 타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회고하면서 "처량한 몰골로 외톨이가 되어, 앉은 것도 선 것도 아닌 엉거주춤한 자세로 어쩔 줄 모르고 보낸 세월"이었다고 말했다 한다. 지우고 싶은 아픈 시절이겠지만, 그래도 어쩌겠는가. 아픈 역사도 역사인 것을.

누가 뭐라 해도 김춘수라고 하면 먼저 떠오르는 시가 바로 '꽃'이다. 학창 시절 이 시를 교과서에서 처음 접했을 때의 기분 좋은 충격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하나의 몸짓에 불과한 존재가 이름을 불러주자 비로소 꽃이 되었다는 내용이 인상적으로 다가온 시였다. 지적 전율이라고 할까. 뭐라고 표현할 수 없었지만, 매우 철학적인 시라고 느낀 것 같았다. 직접 들어보기로 하자.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첫 시집 〈구름과 장미〉에 수록
교과서에 수록돼 널리 알려져
호명에 의미 있는 꽃으로 거듭나
존중하며 사는 공간이 화장세계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 그는 다만 /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 그는 나에게로 와서 / 꽃이 되었다. /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 그에게로 가서 나도 / 그의 꽃이 되고 싶다. / 우리들은 모두 / 무엇이 되고 싶다. /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모두가 꽃이다

불교에는 '꽃'을 연상시키는 사상이 있다. 불교 사상 가운데 가장 철학적이라 불리는 화엄(華嚴)이 그것이다. 화엄이란 글자 그대로 온갖 아름다운 꽃[華]으로 세상을 장엄[嚴]한다는 뜻이다. 우리가 사는 세계가 온통 꽃으로 장식되어 있다고 상상해 보라. 아름답다는 말이 절로 나올 것이다. 화엄에서 세상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다. 모순과 부조리로 가득한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이 실은 불성이 실현된 공간이라 믿기 때문이다. 이를 '불성현기(佛性現起)', 줄여서 흔히 '성기(性起)'라고 부른다. 한마디로 내가 서 있는 이곳이 파라다이스라는 것이다. 화엄은 세상을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세계관이다.

이곳에서는 장미나 모란처럼 예쁜 꽃이라 해서 특별하게 취급하지 않는다. 반대로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에도 차별 대우는 없다. 그야말로 모두가 평등한 이상적인 세계를 그리고 있다. 화엄의 공간에서는 뱀을 징그럽다고 여기는 편견이나 선입견 또한 설 자리가 없다. 이런 생각은 그저 망상에 불과하다. 마치 술에 취해 전봇대에 머리를 부딪히면 별이 보이는 것과 같은 착각일 뿐이다. 술에서 깨어나면 별이 사라지는 것처럼, 망상 또한 그렇다는 뜻이다. 화엄의 시선에서 보면, 뱀이 징그러운 것이 아니라 뱀을 징그럽게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이 오히려 징그럽다.

이러한 화엄 사상은 출신이나 학벌에 의해 서열이 매겨지고 있는 오늘의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의미로 다가온다. '흙수저'나 '금수저'라는 말이 일상적으로 쓰이는 것은 그만큼 양극화된 사회에 살고 있다는 방증이라 할 것이다. 개천에서 용 나는 일이 불가능해진 사회에 무슨 미래가 있겠는가. 신분, 성별, 피부색과 관계없이 우리가 모두 아름다운 꽃이라는 화엄의 시선이 절실히 요구되는 오늘이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시인은 이름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이름은 단순한 몸짓에서 의미 있는 '꽃'으로 질적 전환을 이루는 매개이기 때문이다. 그저 의미 없는 존재에 불과한 몸짓이 이름을 불러 주자 내게 와서 아름다운 가치를 지닌 '꽃'이 되었다고 시인은 노래한다. 새롭고 의미 있는 관계가 형성됐다는 뜻이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 역시 그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 나만이 지닌 빛깔과 향기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다. 이처럼 이름은 나와 너를 의미 있는 관계로 맺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어쩌면 이름에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알려진 것처럼, 부처님 당시 인도는 태어날 때부터 브라만과 귀족(크샤트리아), 평민, 천민이라는 4개의 계급으로 결정되는 사회였다. 그래서인지 브라만 출신의 부처님 제자에게는 남모르는 아픔이 있었다. 어떻게 브라만이 자신들보다 계급이 낮은 크샤트리아의 제자가 될 수 있냐고 주위에서 비난했던 것이다. 이를 안 부처님은 그들을 불러 태생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 신분이 결정된다는 가르침을 주셨다. 그리고 네가 누구냐고 물으면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답하라고 하였다.

"나는 사문 석가의 아들이다."

브라만이나 크샤트리아와 같은 차별적인 이름이 아니라 부처님의 자식[佛子]이라는 새롭고 의미 있는 이름, 즉 법명(法名)이 생긴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나는 부처님의 아들, 딸이므로 불성(佛性)을 지닌 존엄한 존재로서 의미를 가진다. 단순히 부처가 될 가능성이 아니라 앞서 말한 불성이 실현된 존재인 것이다. 그가 나에게 와서 부처라는 꽃이 된 것처럼, 나 역시 부처로서 존중 받는 세상, 화엄의 이상이자 우리가 꿈꾸는 불국토다.

불교대학이나 절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법명을 부르자고 수업 시간에 자주 말하곤 한다. 법명을 부르면 아랫사람이라고 함부로 대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불자들 사이에서도 누군가를 지칭하면서 '홍길동이가' 하는 식으로 말하면, 옆에서 듣기가 민망하다. 이럴 때 법명을 부르면 자연스레 '거사님, 보살님' 호칭이 뒤따를 테니, 존중하는 마음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싶다. 시인의 지적처럼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의미를 담고 있는 꽃이다. 몸짓과 몸짓이 아니라 의미와 의미가 만나 서로 존중하면서 사는 공간이 바로 아름다운 화장세계(華藏世界)다.

화엄은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를, 다수가 아니라 소수를 품고자 하는 사상이다. 버려지고 소외된 사람들과 아무도 찾지 않는 작은 것 하나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담긴 것이다. 이 시를 주목하고 화엄의 시선으로 해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나이, 성별, 신분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이름' 있는 꽃이다.

〈전북불교대학 학장〉



공동모연 캠페인

생명나눔! 불자님의 자비 손길이
캄보디아 아이들의 희망이 됩니다



자유롭게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의 작은 소원!
지금 우리가 내미는 작은 손길이
아이들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

지원 물품 학용품, 신발, 의료물품 등
후원 계좌 농협 053-01-269062 (현대불교신문)
※물품 지원 가능
후원 문의 02)2004-8214 2차 현지 방문 2026년 1월

현대불교신문사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